

# 농지연금 가입문턱 65→60세 낮춘다

### 농지연금 10주년 활성화 방안 마련... 내년 1월 시행 목표 종신형 상품 비중 확대...저소득·장기 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광주·전남 올 신규가입 182건...65~70세 비중 35% 최다

갖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에서 60세로 낮아진다. 가입 대상 연령이 낮춰지면서 광주·전남 2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16만1000가구가 내년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지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

하다는 농업인 요구를 반영하고 만 55세부터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 등 유사 상품 여건도 감안했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182명이 신규 가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70세 비중이 35%(64명)으로, 가장 많았다. '71~75세'가 27%(49명)으로 뒤를 이었고, '76~80세' 23%(41명), '81~85세' 12%(22명), '86~90세' 2%(4명), '91세 이상'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가입자 296명 가운데서도 65~70세 비중이 40%(118명)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2019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지를 소유한 65~79세 농가 수는 총 48만여 가구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대상 대비 가입률을 3.8% 정도(48만가구 중 1만8351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가입 연령이 낮춰지면 광주·전남 2만 가구를 포함, 전국 16만1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연령 완화와 함께 종신형 상품 비중 확대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한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부가특기, 선택특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 양형 상품을 개선하고 임대형 상품을 신설한다. 또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을 추진해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를 지원한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은 연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가특기와 선택특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 관련 내용은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올 상반기(6월 말 기준) 전국 1253명이 신규 가입했다. 지난 연말(1만7098명)에 비해 7.3%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동안 28명이 신규 가입한 제주가 증가율 1위(19.2%)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9.6%), 대구·경북(9.0%), 충북(7.7%), 대전·세종·충남(7.3%), 전북(6.6%), 강원(6.5%) 순으로 높았다. 광주·전남에서는 상반기 기준 138명이 새로 가입하며 증가율 6.3%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 이어 서울·인천·경기가 6.1%로 가입 증가율 꼴찌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2388명이 가입했는데, 이 가운데 712명이 중도해지하면서 해지율은 29.8%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해지율 29.6%(1만8351건 중 5424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광주·전남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지난 6월 기준 70만8000원으로, 전북(44만8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월 지급금이 가장 많은 강원(160만3000원)보다 89만5000원이 모자라고, 전국 평균(116만7000원)에 45만9000원 못 미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관련 법령의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추석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식품안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17일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식품안전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전남 400여 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축산물판매장 등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식품안전·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같은 기간 동안 '식품안전 특별상황실'도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및 식품안전 위생관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 관련 일반상품 흔재 판매 ▲수입농산물 취급 등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판매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를 통해 식품안전 위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추석 앞두고 선물꾸러미·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농관원 전남지원, 165명 투입 누리집 통해 식별정보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5명을 투입해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식품, 특산물 등 선물 꾸러미가 주요 단속 품목이다.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주로 외국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사전 점검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난 8월20일부터 29일까지는 18명으로 이뤄진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제수용품 구입 때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집(naqs.go.kr)을 통해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산 홍삼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띤다. 반면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

체가 진갈색이다. 국내산 소갈비는 뒷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뒷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표고버섯 국내산은 갓 형태가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자루는 깨끗하고 신선도가 높은 반면, 중국산은 갓 형태가 둥글고 일정하며, 자루에는 이물질이 붙어 있다. 황규광 전남지원장은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달의 새농민상에 이광배·김영란, 박시평·로델라부에도 부부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9월 '이달의 새농민상(像)' 수상자로 선정된 이광배·김영란씨(신안군 안좌면·신안농협) 부부, 박시평·호도호 로델라부에도노씨(영암군 삼호읍·삼호농협) 부부를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광배·김영란 부부(황소농장)는 1989년 농업에 시작해 현재 수도작, 마늘·양파 재배, 한우사육 등의 복합영농을 실시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다. 영농회장·각종 농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9월 '이달의 새농민상'에 선정된 이광배·김영란씨(신안농협·왼쪽) 부부, 박시평·호도호 로델라부에도노씨(영암 삼호농협) 부부. <전남농협 제공> 박시평·호도호 로델라부에도노 부부(용소농장)는 2007년 귀농해 수도작, 감·무화과 재배, 한우사육 등의 복합영농을 통해 자립경영을 달성한 선도농업인이다. 농업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한 최신농업 도입, 조식 자가 생산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서홍 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